

수령형상소설에서 시점의 기능과 시점설정의 중요요구

정 철 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수령형상소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 선군시대 작가들의 성스러운 사명이다. 이 무겁고도 책임적인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더욱 생동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수령형상방법론을 특색있게 활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인간생활을 작가나 제3의 인물의 시점에서 그리기도 하고 수령의 시점에서 깊이있게 그리기도 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32페이지)

소설은 인간과 그가 창조하는 생활을 독자들에게 형상적화폭으로 펼쳐보인다. 소설에서 펼쳐야 할 인간과 그의 생활은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물의 시점을 빌어 그의 안목으로 생활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하게 한다. 소설에서는 제3자의 시점을 리용하는 경우에도 작품의 형상세계속에서 생활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떤 시점을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생활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시점은 소설일반의 원리를 구현하면서도 수령형상생리로부터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시점은 수령의 위인적품모가 발현되는 생활을 직접 보여주는 인물의 안목으로서 그 어떤 평범한 생활이 아니라 비범하고 특출한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가장 진실하고 생동하게 체현하고있는 생활을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된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생활을 수령의 시점으로 보여줄수도 있고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보여줄수도 있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비범한 위인적품모를 그에 맞는 폭과 깊이에서 감각할수 있는 시점을 설정하는것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시점은 우선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화폭속에서 수령형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생활묘사의 폭과 깊이문제는 수령형상소설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그 어떤 개인의 생활이나 지엽적인 생활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부각시킬수 있는 생활이어야 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어울리는 생활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이 문제는 시점설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불합리한 시점, 협소한 안목으로는 생활의 미세한 단면으로부터 그 본질에 이르는 거대한 영역을 보여줄수 없으며 그러한 시점으로는 수령형상과제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시점을 잘 선택하여야 독자들에게 수령의 위인적품모에 매혹되는 감동깊은 생활화폭을 펼쳐보일수 있다.

수령형상과제를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시점설정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있다. 주제를 옳게 실현하자면 주제가 체현되어있는 생활을 예리하게 감각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생활이 안고있는 의미를 어떤 각도에서, 어느 정도로 감각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게 주어질수 있기때문이다. 생활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깊이있게 감수할수 있는 시점을 설정할 때 생활속에서 주제를 집중적으로 해명할수 있다. 이처럼 수령형상소설에서 시점은 수령형상과제를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시점은 또한 작품의 지성도를 높일수 있게 한다.

수령형상소설의 지성도는 수령형상의 이성적인 높이이다.

수령형상소설은 인류지성의 최고의 높이에 있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소설의 지성도를 높이는 문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형상창조문제로 된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는 수령의 특출한 위인적높이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감각하는 지성적인 시점을 통해서만 수령형상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다. 결국 수령형상소설의 지성도는 시점인물의 지성도와 직접적인 련관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시점설정의 중요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수령의 시점에서 생활을 그리는것이다.

수령은 그 어떤 개인에 비할바 없는 비범한 안목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수령의 시점으로 생활을 그리면 그 본질과 합법칙성에 이르기까지의 해명이 동반되게 된다.

수령의 시점으로 생활을 그리면 수령의 내면세계형상도 더 깊이있게 할수 있다.

작품의 기본인물관계에 서있는 인물이라고 하여도 그의 시점에서는 수령의 내면세계를 직접적으로 형상할수 없다.

수령의 시점으로 생활을 그리면 평범한 생활의 흐름에서도 수령의 위인적풍모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서 보여줄수 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로 우리 조국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보유국의 존엄과 위력을 세상에 과시한 력사적사실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작품의 시작과 마감에서 형상의 중심에 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점으로 생활을 펼쳐보여 주었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에 대한 적들의 요격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지길에 아름답게 피어난 철쭉꽃을 보시며 어머님께 대한 소중하고 뜨거운 추억에 잠기신다.

언제인가 봉긋봉긋 망울이 지는 철쭉꽃나무가지들 도자기병에 꽃으시며 장군님께서 사시절 쉽없이 넘으시는 철령에 피는 철쭉꽃이어서 꺾어왔다고, 이제 여기에 꽃을 피워서 봄을 앞당겨오자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를 심중에 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어머님의 영상을 그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어머님께 꼭 승리의 소식을 알려드리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뜨거운 심중의 말씀을 드리신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로 전세계가 들끓고있는 시각 달리던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묘소쪽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신다. 그이께서는 승리의 보고를 어머님께 드리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평생 념원하신대로 강성국가의 새봄을 앞당겨오고야말 맹세를 다지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점으로 형상된 이 마감부분은 시작부분과 하나로 조화되면서

자연의 봄보다 먼저 꽃을 피워 봄을 앞당겨오신 어머니에 대한 원수님의 소중한 추억을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사랑하는 어머니의 념원을 받들어 강성 국가의 새봄을 앞당겨오시려는 원대한 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위인적 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수령의 시점은 우선 수령의 위인적품모가 드러나는 본질적인 생활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수령의 시점을 설정하면서 비본질적이고 세태적인 생활마당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수령형상의 품위를 떨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수령의 위인적품모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생활마당에서의 수령의 시점을 설정하여야 인민대중의 운명적인 문제해결의 출로를 찾아내는 수령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일수 있다. 여기서 수령의 위인적품모의 본질이 체현된 생활이란 사건자체의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요란한 정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생활을 수령의 시점으로 펼쳐야 한다.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에서는 태양절의 하루를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에서 형상하였다.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달째나 비가 내리지 않는 봄철날씨로 하여 안타까움을 안고 새날을 맞이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물지계를 지고 다락밭을 오르내리던 처녀들을 생각하시며 한 일군과 발판개용잠관생산문제를 의논하시고 량강도 풍산군녀성이 세쌍둥이를 낳은 사실을 보고받으시고는 너무도 기쁘시여 녀투사들앞에서 뜨거운 걱정애 잠기신다.

비가 내릴것만 같은 예감이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땅을 적시자면 얼마만큼 와야 하는가를 보시려 손수 호미를 드시고 땅을 파보신다.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내리는 비를 맞으시며 더없이 기뻐하시였고 그길로 강동군 다락밭청년분조원들을 찾아 떠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직접적으로 펼친 이 작품은 태양절 하루동안의 생활을 그렸지만 수령님의 한생은 바로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한생이었다는 무게있는 주제를 해명하고있는것이다.

수령의 시점은 또한 위인의 시점이라는 특성에 맞게 평면적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립체적인 시점으로 되어야 한다.

수령은 숭고한 지성과 감각을 소유하고있는 위인중의 위인인것만큼 시야와 감각에서 보통사람들과 다른 폭과 깊이를 가진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소설에서 수령의 시점은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리는 시점, 평면에서 립체를 감각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점으로 되어야 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수령의 시점은 가장 지성적이고 분석적인 시점으로 되어야 한다. 가장 지성적이고 분석적인 시점이라고 할 때 그것은 평범한 생활현상으로부터 본질을 파악하며 그 의의와 발전의 합법칙성, 다른 현상과의 련관성까지도 내다보는 시점을 말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수령의 시점은 인민대중의 운명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인의 내면세계를 펼칠수 있는 가장 지성적인 시점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상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호상련관과 발전의 견지에서 그것이

다른 대상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부터 생겨날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등 전일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사색과정을 계발시킬수 있는 시점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시점설정의 중요요구는 다음으로 사건발전의 극적정황에 맞게 여러 인물들의 시점을 다각적으로 설정하여 생활을 보여주는것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사건발전의 극적정황에 맞게 여러 인물들의 시점을 통하여 생활을 보여줄수 있다. 여러 인물들의 시점으로 생활을 보여주는것은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투쟁의 간고성, 복잡성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생활을 다면적으로, 립체적으로 풍만하게 보여주는데서도 의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선 수령형상과제해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물에게 시점을 주는것이다.

생활을 재미있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인물에게 시점을 주는것은 형상의 중심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감정의 일관성을 보장할수 없게 한다. 따라서 작가는 시점을 줄 때 해당 인물이 수령형상과제해명에서 맡고있는 몫의 크기를 놓고 감정선의 조화를 타산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전반생활의 여러 단면들에서 최고사령부작전지휘조성원인 김하천의 시점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더욱 깊이있게 부각시키고있다.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으로 오랜기간 군사부문에서 사업해온 경력도 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보좌하는 과정을 통하여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위인적풍모를 심장으로 절감한 김하천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하는 항공련대장 한세웅의 장인이기도 한 그의 눈물겨운 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하와 같은 동지애의 세계를 더욱 뜨겁게 느끼게 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여러 인물의 시점설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생활의 비약과 함축을 보장하면서도 사건발전과정에 그 본질을 가장 깊이 투시할수 있는 인물에게 시점을 주는것이다.

생활의 비약과 함축은 많은 경우 시점인물에게 달려있다. 주제해명에 필요한 생활을 합리적으로 취사선택하는데 따라 이야기의 전진속도가 결정된다. 시점설정에서는 이것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생활을 가장 흥미있게 보여줄수 있는 인물에게 시점을 주어야 한다. 같은 생활을 본다고 해도 그 인물이 어떤 지성과 감각, 감정상태에 처해있는가에 따라 생활에서 독자들이 받아안은 감흥은 질적차이를 가진다.

특히 수령형상소설에서는 형상의 중심에 수령을 모시고있는것만큼 위인을 모신 생활의 다채로운 정서적색갈을 가장 원만하게 감수할수 있는 인물에게 시점을 주어야 한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시점설정의 중요요구는 다음으로 시점설정의 구체적인 수법들을 특색있게 활용하는것이다.

시점설정의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우선 1인칭시점설정수법이 있다.

1인칭소설은 《나》의 시점을 통하여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소설형태이다.

실례로 단편소설 《절정》을 들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중심에 모신 이 작품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장군님과 한 학급에서 생활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닌 상옥의 시점에서 생활을 펼쳐보이고있다.

학급에서 병결이 잦은것으로 하여 《고삭부리》로 불리우던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

거운 사랑을 받아안게 되면서 자기와 같은 운명적문제로 하여 곡절을 겪고있던 고성녀의 불행에 대하여 무시했던 자기를 심각히 돌이켜보게 된다. 그 과정에 고성녀의 운명적곡절의 원인이 밝혀지고 곡절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품에 안으시여 새로운 삶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가 숭고하게 부각된다.

1인칭소설에 의한 시점설정은 지금까지 상대인물 또는 측근인물의 시점으로 수령형상화폭을 펼치는데 활용되어왔다.

1인칭소설에 의한 시점설정수법은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이면서 감정정서적마루를 크게 조성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수령형상창조에서는 1인칭시점설정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령의 내면세계를 격조높고 정서적인 화폭속에 펼쳐보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점설정의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또한 3자의 시점설정수법이 있다.

이 수법은 《나》가 아니라 한 인물에게 또는 여러 인물에게 시점을 주거나 제3자의 객관적시점으로 생활을 보여주는 수법이다. 여기에서는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생활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수령형상과제해명의 폭과 깊이를 보장할수 있다.

이 수법은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를 비롯한 수많은 수령형상소설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시점설정수법으로서 생활을 폭넓게 보여줄수 있을뿐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생활을 집약적으로, 선택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우점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시점변경의 계기를 합리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시점을 자주 변경시키면 독자들을 수령의 위인적품모가 발현되는 작품의 세계에로 깊숙이 끌어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장면이 가지는 몫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독자들을 사건발전에 중심깊이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의 시점변경의 계기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점의 병행과 교차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수령형상과제해명의 심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수령의 비범하고 특출한 위인적품모를 생동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시점을 설정하는것과 같은 수령형상방법론을 특색있게 활용하여 수령형상소설을 명작중의 명작으로 완성함으로써 수령형상소설문학의 대화원을 아름답고 풍만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